



제 711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2년 12월 24일(음력 11월 27일) 수요일(주간)

다시 듣는 선지식들의 가르침

14 2008년 선지식 법어 요약

생명·평화 노래하다

5 현장속으로-생명평화탄발순례단

“땅이 튼튼해야 돼요”

9 도반의 향가-서분례

밥 짓고 일하는것도 수행

13 함께가요 강익살-서명원 신부

‘너’가 있어 ‘나’도 있다

밝은사람들, 무·공·연기·무상 통해 ‘나’ 집중 조명

불황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으로 너도 나도 힘든 때다.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은 이들의 안타까운 소식은 전염병처럼 퍼져 온 세상을 휘감는다. 극복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대개 사람들은 자포자기 하기 쉽다. 이유 없는 낙관으로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모두 제 각각이지만 평상심을 잃고 우울좌왕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왜일까?

전문가들은 자아경계(ego bound ary)가 허물어졌기 때문이라 진단한다. 외부의 충격 등으로 자의식을 잃은 자아상실은 ‘마음의 갑기’로 불리는 우울증을 동반한다. 심한 경우 자살에 이르는 것은 물론이다. 반면에 ‘내가 망하면 이 세상도 망할 것(망해야 한다)’이라며 자아범람의 망상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다. ‘물지마 살인’ 등으로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는 것이 이렇다. 자아상실과 자아범람 두 가지 모두 ‘나’가 문제인 것만은 틀림없다.

현대 사회의 화두가 돼 버린 ‘나’를 두고 초기불교, 유식불교, 선불교 등 불교학을 비롯해 서양철학, 심리학, 정신의학, 생물·번역학 등 학제간 소통의 장이 열려 관심을 모았다. 밝은사람들(소장 박찬욱)이 12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제6차 학술연찬회가 그것.

행사는 지난 6월 ‘육망’을 주제로 열린 제5차 학술연찬회처럼 교재의 선제공, 사전집문 접수 등 철저 기획·연출됐다. △초기불교는 정준영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가’를, △중관·유식불교는 허인섭 교수(덕성여대)가 ‘내가 없다(無我)는데 의식은 홀로(唯識) 어디에 있는가’를, △선불교는 김진무 연구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가 ‘잡나 혹은 진아의 탐구와 불성으로서의 자성’을, △서양철학은 박찬국 교수(서울대)가 ‘본래적 자기와 존재지향적 자아, 그리고 우아한 자아’를, △정신의학은 김

중주 원장(반포신경정신과의원)이 ‘무의식 또는 상상계와 상징계 속의 자아’를, △심리학은 권석만 교수(서울대)가 ‘자기개념의 발달과 구조 그리고 심리장애와의 관련성’을, △생물·번역학은 우희종 교수(서울대)가 ‘복잡계 속에서 깨어있는 나’를 발표했다.

■ ‘나’는 본래 ‘無’=불교의 기본 사상은 무아(無我)다. 정준영 교수는 “초기불교에서의 무아는 실제적 자아에 대한 부정”이라 강조했다. 초기불교에서는 자아는 애당초 실재하지 않은 회분적 개념이다. 정 교수는 “나”가 고정된 것이라면 무상함의 기본 교리에서 벗어 난다”고 설명했다.

자아를 부정하기는 유식불교도 마찬가지. 허인섭 교수는 “유식불교에서 자아는 (집착적인) 말라시가 잘못 전한 개념적 존재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반면에 선에서는 무아가 곧 진아(眞我)다. 김진무 연구교수는 “중국 선에서의 자성은 본체의 진리로서 설명되지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초기불교 입장을 내부적으로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자성’은 본래 ‘空’=대승불교의 핵심은 중관불교에서 체계화된 공(空) 사상이다. 공은 무자성(無自

性) 혹은 자성의 비어있음으로 실제적 자성에 대한 부정을 뜻한다. 허인섭 교수는 “실제적 자성은 유식불교에서도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구성적 무아(無我) 유식”이라며 “중관과 유식은 철저히 초기불교의 무아(無我)를 정밀반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무 연구교수는 “선은 자성이 있어 보라고 한 것 보다 실제가 없음을 보라고 말했다”며 “지금 이 자리”의 관계를 강조했다. “이”라고 설명했다.

■ ‘나’의 근원은 ‘緣起’=자아는 흔히 ‘거울’을 비유로 설명된다. 권석만 교수는 “거울은 자기 개념 발달 과정에서 핵심적”이라고 말했다. 이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를 알아가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이어 권 교수는 사회 속에서 타인과의 피드백에 의한 자아형성을 강조했다. 우희종 교수도 “일관성 생애가 사람은 탈라도 DNA가 같은 것처럼 자기정체성은 후천적으로 형성된다”고 말했다.

■ ‘나’란 존재는 ‘無常’=‘나’는 시때때로 변화한다. 가족과의 ‘나’, 직장에서의 ‘나’ 등. 하지만 어느 것이 진짜 ‘나’의 모습일까? 정준영 교수는 “나”는 변화하기에 고정되지 않은 존재”라 주장했다. 박찬국 교수는 “하이

데거도 일상적 삶에서 자기 동일성 없이 분열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며 “삶에서 정체성과 통일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석만 교수는 “자기 개념은 수많은 경험을 통합하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기억은 과거의 경험을 현실에 잡고 미래를 현실에서 포착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 관속의 ‘나’는 만들어 가는 것=이날 발표자들은 각각의 분야에서 표현한 용어가 다르고, 설명방법이 달랐어도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라는 명제만은 같았다. 결국 ‘나’는 관계성 속에 실현될 어떤 것이며,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갈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우희종 교수는 “이 자리에는 삶이 있을 뿐 ‘나’는 없다”는 말로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우 교수에 따르면 ‘나’는 ‘나’와 ‘너’의 관계성에 있는 존재이며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은 내 주위사람이며 ‘내’ 속속의 ‘당신’이다.

결국 ‘나’는 버릴 것도 찾을 것도 아니었다. 오직 만들어질 뿐이며, 남이 있어 존재할 뿐이다. 나를 ‘나’답게 하는 길이 남을 위하는 이타행이며 수행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예수님 박애 본받아 서로 아끼고 사랑합시다” 지관스님 성탄축하 메시지 발표...현수막도 게시



조계종 사회부장 서영 스님, 포교국장 부명 스님, 재정국장 원철 스님과 조계사신도회 이영우 부회장 등은 12월 17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는 내용의 성탄 축하 현수막을 내걸었다. 사진=박찬욱 기자

2008년 성탄절을 맞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예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지관 스님은 12월 17일 발표한 메시지를 통해 “깊고도 크신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탄생을 2000만 불교도와 함께 축하한다”고 말했다.

지관 스님은 “세간의 그들은 탐진치 삼독(三毒)으로 얼룩진 우리들의 그림자일 뿐”이라며 “탐욕의 동굴은 용기 있는 버림과 나눔으로, 분노의 불꽃은 다스림과 근면으로, 사건의 칼날은 타인을 이해하는 겸허함과 사랑으로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말

했다. 스님은 이어 “일월(日月)과 같은 예수님의 박애(博愛)를 본받아, 국민 모두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9년째 성탄메시지를 발표한 조계종은 우정국로에 축하현수막도 내걸었다. 김성우·노덕현 기자

‘역경 보살’이 역경원 떠난 이유?

東大, 월운 스님 ‘재계약’ 통보 없이 거부

‘역경보살’로 불리며 평생 역경불사에 헌신해 온 월운 스님(봉선사 조실)이 갑작스레 역경원을 떠나 충격 받고 있다. 관련칼럼 2면

12월 19일 동국대 정각원에서는 월운 스님의 역경원장 취임식이 봉행됐다. 당초 역경 후원회(상장법회)로 열릴 예정이었던 법회가

동국대의 일방적 해임결정에 따라 임명회까지 된 것. 스님의 해임은 12월 8일 오영교 총장이 주재한 동국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아무런 사전 협의나 논의 없이 내려진 것이었다. 월운 스님이 역경원장에 취임한 1993년 이후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재계약이 승인됐던 관례에 비했을

때 동국대의 처사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에 대해 동국대는 (가칭)불교화술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려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월운 스님은 “중단적 합의기구로 설립된 역경원을 교수 합의기구로 격하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자신의 역경원장 해임보다 역경원 위상이 추락할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사했다. 조동섭 기자

불황·한파, 마음공부로 ‘희망’을...

특별기획 ③생활속의 참선수행 -한마음선원 ▶ 7면

社告

‘법보시’로 다함께 깨닫는 세상을...

본사에서는 국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특수법인, 각종 학교 등 공공기관에 현대불교 보내기 캠페인을 벌입니다. 한 장의 ‘호법보살’인 현대불교는 불교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포교기능과 종교개혁 및 해외 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불교를 외 호하고 불법을 널리 전하는 최일선의 포교사가 될 것입니다.

법보시 대상
군부대, 병원, 교도소, 각종 학교 및 공공 도서관/청와대 각부서/국회의원실/정부(15부 2처) 경찰청/지방자치단체(각급 교육기관/전국 공공도서관/군부대

법보시 후원 안내
문의 대표 (02)2004-8200
-법보시는 1구회 1,000원 이상 -계좌: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첫서미는 금강선원 뽕잎차

현대 불교 신문 연재 | 초중소년의 뽕잎차 이야기

당뇨병, 고혈압, 혈액순환

주소장에 치세요
주소(0) 뽕잎차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동도사찰사 금강선원
뽕잎차 주문 TEL (055) 931-9590

“술 산화율 100%”
청기향

덕유산 청대향 문의 (055)941-1083

무치님 제일공양 한국최초 식품과학 연구분석(동국대) 51가지 향기판명

올겨울 추위, 난방비 걱정 끝!

냄새없고 전기료가 부담없는 나산전기난로로 해결하세요!

실내전체가 훈훈해지는 나산전기난로

난방비 90%절약!!!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1.8kW×8=978원

나산원통형 고효율 / 카본히터 사용장소/공장용·업소용·농업용·사무실용

NS-7600

- 화력의 강약조절 강: 2.5kW, 약: 1.2kW
- 회전기능: 좌우 90도
- 높이조절: 상하, 135cm ~ 100cm
- 중량: 약 8.5kg
- 크기: 반사경(60cm) 높이: 135cm

● 산업용(공장, 기업체) 20평형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2.5kW×8시간=1,358원 (안전인증번호) NS-7600 : HH07142-2008D
특별할인가: 198,000원 (특대 4,000원 소비자지원)

NS-7800

- 화력의 강약조절 강: 1.8kW, 약: 900W
- 회전기능: 좌우 90도
- 높이조절: 상하, 135cm ~ 100cm
- 중량: 약 6.5kg
- 크기: 반사경(54cm) 높이: 135cm

● 상가용(15평형)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1.8kW×8시간=978원 (안전인증번호) NS-7800 : HH07142-1004C
특별할인가: 178,000원 (특대 4,000원 소비자지원)

강력난방 국내생산 1년간 A/S

ADO-2000(적용면적: 5평형)

열량 / 2kW · 사이즈 / 270×400mm · 무게 / 3kg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2.0kW×8=1,088원
특별할인가: 78,000원 (특대 2,000원 소비자지원)

NS-7000

●NS-7000(적용면적: 10평형)
열량 / 2.9kW · 사이즈/355×660mm · 무게 / 4.1kg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2.9kW×8=1,575원

나산전기 난방기 이런 곳에 사용하세요

- 24시간 쾌적한 난방이 필요한 곳과 지속적인 연료 구입이 어려운 장소
- 상주 인구가 많아 산소결핍으로 자주 환기를 해야 하는 곳
- 이동 인구가 많아 시설물 손상에 의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곳
- 대형매장이나 식당 등 주변방은 있으나 사각지대가 있어 보조난방이 필요한 장소

주 사용처 : 사무실등 협소한 장소, 이동이 잦은 곳, 접객업소(식당 / 주점 / 펜션)

강력한 화력! 저렴한 전기료! 편리한 이동성!
전기 난로의 진정한 強者! 나산전기히터!

100% 국내산 / 중국산과 비교불러!

- 복고풍 디자인의 안전한 전기히터
- 좁은 공간에서도 편리한 소형본체
- 이동이 간편하고 온도조절이 용이
- 상판위에 물을 대워 실내가습효과
- 전도 안전 장치로 쓰러지면 자동으로 전원차단
- 360도 전방향 적외선 전기전달
- 무소음 / 무취 / 무연

일반히터는 히터 주변만 따뜻하지만 나산히터는 실내온도를 상승시켜 실내공기를 훈훈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임금계좌 :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특대비 2,800원 소비자 부담)